

폭염 뚫은 야구 열기... 사상 첫 전반기 700만 관중 돌파

역대 최소 405경기 만에 기록 경기 절반이 매진...KIA는 13경기 롯데와 주말 3연전, 3위 싸움 관심 나성범·김선빈·이의리, 복귀 시동 8~9일 NC와 2군 경기서 최종 점검



KBO리그가 역대 최초로 전반기 700만 관중 돌파를 이뤘다.

지난 2일 광주챔피언스필드 등 전국 5개 구장에 7만 6723명이 입장하면서 누적

관중 수가 700만 7765명이 됐다. 무더위에도 역대 최초로 전반기 700만 관중에 성공했다.

처음 1000만 관중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 관중을 기록했던 2024시즌에는 후반기가 진행되던 7월 27일 700만을 넘었다. 487경기 만에 이뤄진 700만 관중이었다.

올 시즌에는 지난해 기록을 82경기 단축하면서 역대 최소 경기만 405경기 만에,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700만 관중을 넘어섰다.

또 다른 기록도 세워졌다.

KBO는 지난 6월 17일 600만 관중을 달성했고 15일 만이자 55경기 만에 700만까지 돌파했다. 600만 관중에서 700만 관중 달성까지 걸린 일수와 경기 수도 역대 최소다.

평균관중수도 2일 현재 1만 7303명으로 지난해 동월 경기 수와 비교하면 17%가 상승했다.

삼성이 경기당 평균 2만 2653명을 동원하면서 평균 관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LG가 2만 1651명, 롯데 2만 839명으로 3개 구단이 2만이 넘는 평균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두산 1만 9713명, SSG 1만 8554명, 한화 1만 6922명, KIA 1만 6686명 순이다.

관중수도 삼성이 1위다.

삼성이 홈에서 치른 32경기에 97만 4094명이 입장하면서 100만 관중 돌파를 앞두고 있다.

삼성에 이어 LG(90만 9362명), 롯데(87만 5249명), 두산(80만 8218명)이 80만명 이상을



KBO가 지난 2일 누적관중 700만 7765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초로 전반기 700만 관중을 돌파했다. 뜨거운 6월을 보냈던 KIA는 3위 자리를 놓고 롯데와 주말 3연전을 펼치고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의 복귀도 앞두고 있어 7월 흥행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 제공>

경기장으로 불러들였다. 2일까지 39경기를 치른 KIA의 누적 관중은 65만 754명이다.

매진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2일까지 진행된 405경기 중 관중석이 모두 채워진 경기는 196경기(48%)에 달한다.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 새 등지를 차린 한화는 홈 39경기 중 35경기에서 매진을 장식했다. 이어 삼성이 43경기 중 33차례, 롯데가 42경기에서 39차례

매진을 이뤘다. LG도 26경기를 만원 관중 앞에서 치르면서 20차례 이상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KIA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을 가득 채웠다.

초반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관중 수가 6% 감소한 KIA는 800만 관중 돌파 전면에 설 전망이다.

6월 한 달 가장 높은 0.682의 승률을 기록했던 KIA는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으로 순위 싸움에 불

을 붙였다. 4위까지 치고 오른 KIA는 4일부터 3위 롯데를 상대로 홈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3위를 놓고 리그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이 맞붙게 되면서 팬들의 분위기도 뜨겁다.

뜨거운 날씨에도 주말 3연전 입장권이 거의 팔려 나가면서 매진이 예상된다.

부상 선수들의 복귀까지 예상되면서 KIA의 티켓 파워는 더 커질 전망이다.

종아리 부상으로 재활 중인 '캡틴' 나성범과 '타격 천재' 김선빈이 기술훈련을 하면서 실전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두 선수는 오는 8일과 9일 마산야구장에서 열리는 NC와의 퓨처스 경기를 통해 복귀를 위한 점검 시간을 갖는다.

9일에는 이의리가 퓨처스 경기 마운드에 올라 수습 세 번째 등판이자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대학배구 접경사로구나~

현대캐피탈배 고성대회
조선대·광주여대 동반 우승



조선대 심준호(23번)와 박인우(2번)가 3일 경남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인하대와의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남자대학부 결승전에서 블로킹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대학배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줄 몰랐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 "리베로 윤건우가 뒤에서 받쳐주고 오랑바아가 앞에서 해주면서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몽골 선수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 오랑바아가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한다. 기본기도 잘 갖춰져 있고, 우리 배구에 대한 이해도 빠르다. 지금 1학년인데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다"고 선수

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남자부 경기에 앞서 진행된 여자대학부 결승에서는 광주여대가 우승컵을 차지했다.

광주여대는 경일대를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0(25-23 26-24 32-30)으로 승리를 거뒀다. 2-3세트에서 듀스 접전이 이어졌지만 광주여대는 세트를 내주지 않았다. 광주여대는 집중력 있는 승부로 무실세트 승리를 거두고 지난 대회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랬다. /김여울 기자 wool@

김효주, 2언더 순조로운 출발

KLPGA 롯데오픈 1R 공동 10위... 선두 마다솜과 3타 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5회 롯데오픈(총상금 12억원)에 출전한 김효주가 "스폰서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정말 잘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효주는 3일 인천 배어즈베스트 청라(파72-6684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2개를 잡아냈다.

2언더파 70타를 친 김효주는 오후 2시 현재 공동 10위를 달리고 있다. 5언더파로 선두인 마다솜과는 3타 차이다.

김효주는 6월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대회 도중 기권했다.

그는 "허리 때문에 스윙 과정에서 플로스루가 안 되는 상태였다. 거리가 30야드 정도 될 나가서 대회를 포기했다"며 "치료를 받는 중이고, 아직 완벽하게 다 나은 것은 아니고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효주는 "특히 메이저 대회 도중에 경기를 포기할 정도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저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다음 주 다시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만큼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효주는 이 대회를 마치고 10일 프랑스에서 개막하는 에비앙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날 같은 조에서 경기한 황유민에게는 "빨리 큰 무대로 오면 좋겠다"고 덕담했다.

다음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노리는 황유민에 대해 김효주는 "너무 잘하는 동생"이라며 "영어도 잘 준비하는 것 같고, 거리도 많이 나가는 선수인데 잘 치는 골프를 더 큰 무대인 미국에서 펼치면 좋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김효주와 함께 롯데 후원을 받는 황유민은 올해 US여자오픈,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 출전했고 에비앙 챔피언십에도 나갈 예정이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인트 순위 60위 선수보다 많은 포인트를 따내면 켈리파잉스쿨을 거치지 않고 바로 LPGA 투어로 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우상혁, 전인미답 7연승 도전

높이뛰기 국제대회 최다...12일 모나코 리그서 우승 정조준

'스마일 점퍼' 우상혁(29·우인시청)이 모나코에서 2025시즌 국제대회 7연승에 도전한다.

파리 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와 은메달리스트 셸비 매튜언(미국), 올 시즌 우상혁보다 높은 기록을 세운 올레 도로슈크(우크라이나), 안 스테펠라(체코) 등 세계 최정상급 점퍼가 대거 출전하지만, 우상혁은 자신감이 넘친다.

우상혁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2시 55분에 시작하는 2025 세계육상연맹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한다.

올해 우상혁은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다.

2월 9일 시즌 첫 출전 대회인 체코 실내대회에서 2m31로 우승했고, 같은 달 19일 슬로바키아 대회에서도 2m28로 정상에 올랐다.

우상혁은 3월 2025 년경 세계실내선수권 역시 2m31로 우승하며 올해 출전한 3개 실내 국제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실외 경기 시작과 함께 5월 10일 왓그레비티첼린지(2m29) 우승 트로피를 들고, 5월 29일 구미 아시아선수권(2m29)에서 금맥을 켜다.

6월 7일 로마 다이아몬드리그(2m32)에서도 우승하며 올해 치른 6개의 국제대회를 모두 제패했다.

우상혁은 이미 2022년에 수립한 4연승을 넘어 자신의 국제대회 최다 연승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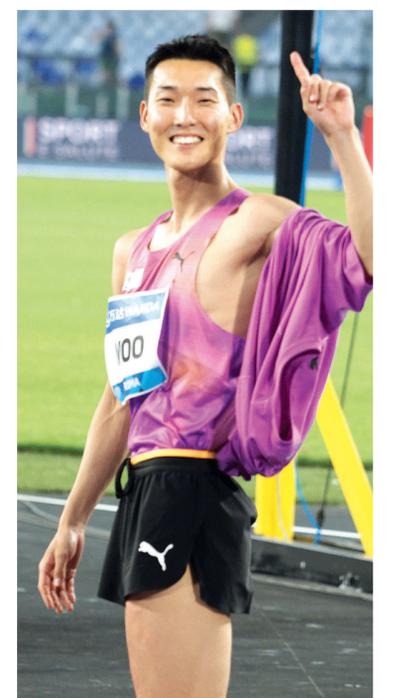
6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절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커를 3월 세계실내선수권, 5월 왓그레비티첼린지, 6월 다이아몬드리그에서 3번 연속 눌렀다.

우상혁의 올 시즌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증거다.

우상혁은 세계육상연맹이 집계하는 2025년 기록 순위에서 3위, 최근 12개월 성적을 수치화한 월드 랭킹에서는 커에 이어 2위를 달린다.

기록 순위에서는 도로슈크(2m34), 스테펠라(2m33)가 우상혁에게 앞선다. 하지만, 우상혁은 올해 도로슈크와의 맞대결 3번, 스테펠라와 맞선 4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우상혁은 세계실내선수권,



우상혁이 지난달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연맹 로마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뒤 기뻐하고 있다.

아시아선수권, 9월 도쿄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목표로 정했다.

2개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한 우상혁은 로마 다이아몬드리그가 끝난 뒤, 유럽에 남아 독일에서 훈련을 이어가며 올해 마지막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을 키웠다.

최정상급 점퍼를 상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면 한국 육상 최초의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향한 기대감은 더 커진다. /연합뉴스